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제기 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 윤리학은 좋음이나 나쁨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가):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② (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 ③ (나): 도덕적 행위의 지침이 되는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 ④ (나): 특정 사회의 도덕 관행을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실천 가능한 도덕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장기 이식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행위입니다. 장기는 희소한 의료 자원이므로 장기 이식 대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장기 기증자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 이식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갑: 동의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 장기의 적합성 같은 의료적 요인과 소득, 사회적 지위 같은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환자의 의료적 요인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환자의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① 장기 이식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시 환자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④ 장기 이식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에 환자의 의료적 특성을 포함해야 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활동이며,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무시한 채 희생하는 것만을 사랑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능동적 활동으로서의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으로 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 모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입니다. 즉,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양자택일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끼고, 주는 것에서 성장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① 능동적 활동으로서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희생으로 실천할 수 있다.
- ②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 ③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사랑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이다.
- ④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사랑할 수 있다.
- ⑤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군자(君子)가 친족들과 돈독히 지내면 백성은 인(仁)한 기풍을 일으킨다. 또한 군자가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야박하지 않게 된다.

을: 성인(聖人)은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의 마음은 비워 주고 배는 채워 주며, 의지는 약하게 하고 뼈대는 강하게 한다. 또한 성인은 백성을 무지(無知), 무욕(無欲)하게 한다.

- ① 갑: 효제를 시작으로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갑: 소박한 삶을 위해 옳고 그름[是非]의 분별을 배격해야 한다.
- ③ 을: 자연에 순응하려면 욕망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 ④ 을: 무위(無爲)의 다스림으로 백성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갑과 을: 큰 도[大道]가 행해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가 간 자연 상태란 전쟁 상태이다. 이것은 적대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단 없는 전쟁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영구 평화는 보편적 평화 연맹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 ①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주권 국가 간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개별 국가의 주권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평화 연맹의 주권뿐이다.
- ③ 어떤 전쟁도 주권 국가 간 평화 조약만으로는 종결될 수 없다.
- ④ 공화 정체에서의 전쟁 선포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⑤ 이방인의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해야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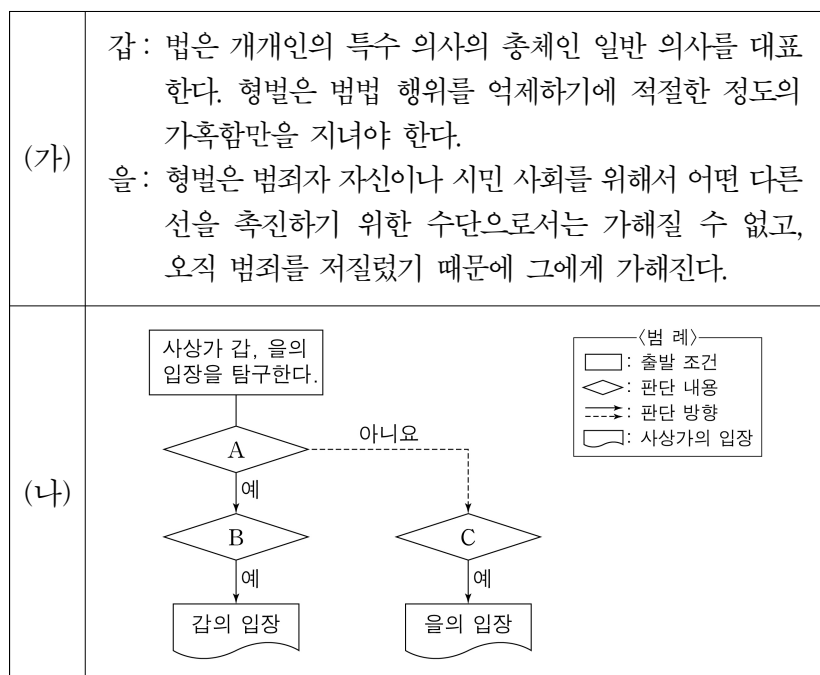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이 때로는 위선이라는 혐의를, 때로는 냉소적인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집단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그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개인의 양심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인간은 이기적 충동뿐만 아니라 이타적 충동도 가지고 있지만 집단 간 관계에서 그 이타적 충동은 집단적 이기심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이기심은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하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훈련을 통해 상호 이해의 태도와 선의지의 감정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회적 불의에 눈감지 말고, 사회가 정의롭게 될 수 있다는 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 ①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 ② 개인의 이기적 충동은 집단 간 관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 ③ 정의는 정치적 강제력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 ④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개인은 결코 선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
- ⑤ 개인의 도덕성이 없다면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형벌이 범죄에 상응한다면 그 형벌은 항상 정당한가?
- ② B: 공리를 극대화하는 형벌도 부당한 형벌이 될 수 있는가?
- ③ B: 형벌이 가혹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 이익의 감소는 불가피한가?
- ④ C: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요구되는가?
- ⑤ C: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범죄는 둘 이상의 인격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8.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삶과 의로움[義]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겠다. 원하는 것 중에 삶보다 더한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 중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
- (나) 지인(至人)은 구름을 타기도 하고, 해나 달에 올라 앉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노닐기도 한다. 삶이나 죽음 같은 것은 그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 ① (가): 죽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가): 인(仁)의 완성을 위한 죽음이라도 의로움에는 어긋난 것이다.
- ③ (나): 도(道)의 관점을 따르면 삶과 죽음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나): 죽음이란 운명[命]이며 흩어져 있던 기(氣)가 모인 것이다.
- ⑤ (가)와 (나): 죽음의 의미를 통찰해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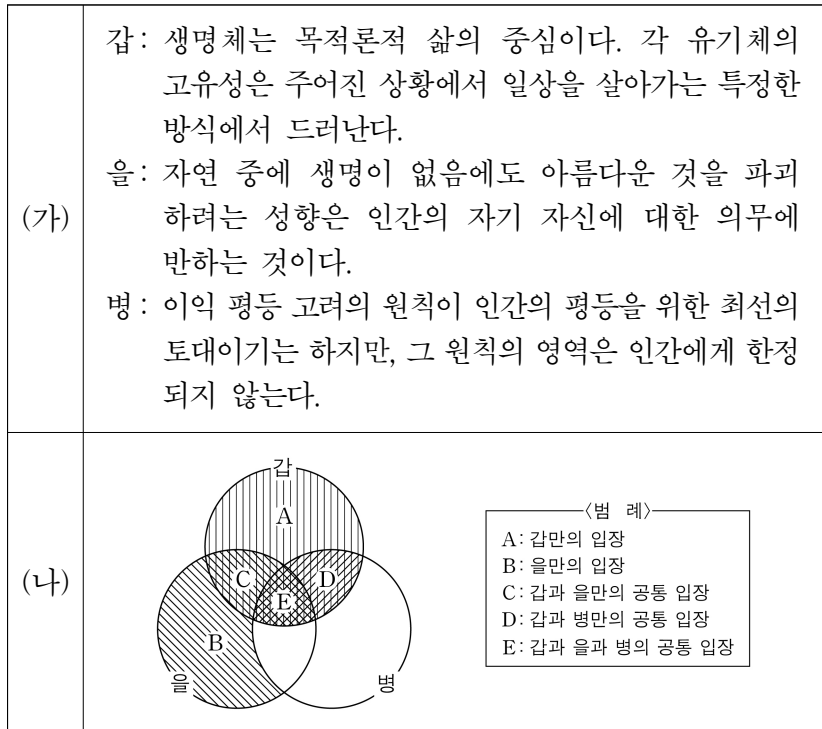
- ① 시민 불복종을 실행함에 있어 개인은 양심에 근거할 수는 없다.
- ②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이 부정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
- ③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는 없다.
- ④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한 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없다.
- 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진 시민 불복종은 위법일 수 없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인은 실재를 모방하지만, 화가는 장인이 실재를 모방하여 만든 산물을 모방하기 때문에 본질로부터 세 번째인 산물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화가의 모방 행위는 일종의 놀이이지 진지한 것이 못 된다. 예술 작품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산물이며, 우리 안에서 지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과 사귀기 때문에 건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시(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선량해지려면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는 추방하고,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① 예술 작품은 장인이 모방하여 제작한 산물보다 본질에 더 가깝다.
- ② 예술 작품을 통해서만 현실에서 참된 진리를 완성할 수 있다.
- ③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산물도 모방할 수 없다.
- ④ 예술은 인간의 올바른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해야만 한다.
- ⑤ 예술은 실재를 인식하는 활동이므로 유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생명이 없는 존재가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하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② B: 어떤 존재가 의무의 주체라면 그 존재에 대한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는 없다.
- ③ C: 자연을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④ D: 인간이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은 존재할 수 없다.
- ⑤ E: 모든 존재가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도덕 원리는 없다.

12.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불자(佛子)는 감각기관[根門]을 걸어 잠그고, 음식의 양을 조절하며, 열심히 수행하여 바른 지혜를 성취해야 한다. 음식의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일정한 수량을 정해 놓고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다. 출가한 이들은 청정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면서 굶주림과 목마름만 그치게 할 뿐이다. 이렇게 하여 이미 일어난 괴롭다는 느낌은 사라지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괴롭다는 느낌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보 기>

- ㄱ. 음식의 섭취는 탐욕[貪]의 제거를 방해하여 고통만을 유발한다.
- ㄴ. 만물의 상호 의존성[緣起]에 유념하며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 ㄷ.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불살생(不殺生)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삼학(三學)을 닦아 음식이 고정된 실체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통받는 사회에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이 결핍되어 있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을: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도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원조는 공리의 원리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다.

- ① 갑: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
- ② 갑: 인권 구현을 위해서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을: 원조의 보편적 의무는 이성적 숙고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 ④ 을: 절대 빈곤국에 대한 원조는 어떤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한 국가가 동시에 원조 주체이면서 원조 대상일 수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 신민이 주권자에게 복종할 의무는 주권자가 신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보 기>

- ㄱ. 개인의 소유권을 정하는 규칙은 주권자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 ㄴ. 신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부정의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 ㄷ. 자연 상태에는 좋음과 나쁨을 구분할 기준도 주체도 없다.
- ㄹ. 권리의 양도는 주권자와 신민 간 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어떤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자체로 선하다.

<문제 상황>

A는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가 실망할 것을 걱정해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거짓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거짓말은 그 목적이 선해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② 거짓말은 이성적 존재의 준칙에 따른 행위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 ③ 거짓말은 좋은 결과를 낳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명심하세요.
- ④ 거짓말은 선의지에서 비롯될 뿐 의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 ⑤ 거짓말이 배려심에 근거한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됨을 명심하세요.

16.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판옵티콘은 중앙 감시탑에서는 모든 수용실이 보이지만 수용실에서는 감시탑을 볼 수 없는 시선의 비대칭성을 지닌 공간이다. 감시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는 감시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동 규율 상태에 놓인다. 정보 사회의 새로운 감시 시스템은 이러한 판옵티콘의 권력 구조를 계승해 전자 판옵티콘의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 판옵티콘이 나를 언제 들여다보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모든 흔적이 데이터로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결국 전자 판옵티콘은 물리적 강제력 없이도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게 하여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게 만든다.

- ① 전자 판옵티콘은 감시 구조에 내재된 시선의 비대칭성을 해체한다.
- ② 전자 판옵티콘은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력 구조로 작동한다.
- ③ 전자 판옵티콘은 물리적 강제력이 발휘될 때에만 작동할 수 있다.
- ④ 전자 판옵티콘은 정보의 수집 없이 개인의 행동을 감시할 뿐이다.
- ⑤ 전자 판옵티콘은 감시 행위가 드러날 때에만 통제력을 발휘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수록, 그 방식이 낯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상력과 예민한 감수성을 동원해야만 한다.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은 우리에게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새로운 윤리는 선의 표상만큼이나 악의 표상을 필요로 한다.

- ① 인간이 고안한 기술의 영향력은 예상된 결과를 넘어서 수 없다.
- ② 책임의 범위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 ③ 새로운 윤리의 대상은 공포를 일으키는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④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보호할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다.
- ⑤ 비의도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떤 주체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천자(天子)처럼 고귀해지고 천하를 차지할 만큼 부유해지는 것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망이 다 수용될 수는 없고, 재화도 충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은 예의(禮義)를 제정해 귀하고 천함의 등급이 있게 하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맡아서 각기 자신에게 마땅한 역할을 갖게 하였다. 그 이후에야 녹으로 받는 곡식의 많고 적음에 균형이 맞추어졌으니,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 살며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 ① 백성이 지닌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 분업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② 직분에 필요한 덕은 그 직분을 맡은 후에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 ③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분의 귀천을 없애야 한다.
- ④ 예에 정통한 군주가 직분을 다하면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질 수 있다.
- ⑤ 군주는 백성의 본성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배해야 한다.

19.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분배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로부터 도출됩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갑

분배 정의의 처음 두 원칙들, 즉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을

- ① 갑: 사회 전체의 복지 증대를 위한 분배 정책도 부정의할 수 있다.
- ② 갑: 각자가 최소 손해자가 될 확률 계산에서 원초적 합의가 도출된다.
- ③ 을: 개인은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④ 을: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하는 분배도 부정의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분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의 역사에서 볼 때, 오직 자기 종교만 참되고 다른 모든 종교는 참되지 않다는 입장, 모든 종교는 참되기에 무차별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 모든 종교가 진리의 일부만을 지니므로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은 참된 평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참된 평화를 위해 종교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의 경계가 자기 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각각의 종교 안에서도 모든 것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할 때, 종교는 참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① 참된 평화는 자기 종교만이 참되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장된다.
- ② 종교적 가르침의 일부가 참이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종교적 진리는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 ④ 종교적 가르침을 비판 없이 수용할 때 참된 평화가 실현된다.
- ⑤ 참된 평화를 위해 서로 다른 종교들을 하나의 종교로 합쳐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